

## **‘쌍폭 책거리’ 그림의 공간배치 연구**

A Study on the arranged space of ‘Ssangpok Checkgeori’ Pictures

**주저자 : 이미영 (Lee, mi young)**

동서대학교 디자인 & IT대학원

**공동저자 : 김순구 (kim, sun gu)**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부교수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책거리 그림의 개념과 공간구성의 특성

- 2-1 책거리 그림의 정의
- 2-2 책거리 그림의 공간구성의 특성

## 3. '쌍폭 책거리' 그림의 공간배치 분석

- 3-1 사물들의 배치구도
- 3-2 사물들의 시점
- 3-3 사물들간의 상관관계

## 4. 현대작품과 비교분석

- 4-1 동시성·정면성 초점에서의 분석
- 4-2 다시점 초점에서의 분석
- 4-3 역원근법 초점에서의 분석
- 4-4 반복구성 초점에서의 분석
- 4-5 사물배치 초점에서의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 (要約)

조선시대 회화를 보면 산수화나 풍속화 등도 유행을 하였지만 서민층에서부터 사대부층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민화이다. 민화는 허세와 가식이 없고 애써 기교를 부리지 않아 소박한 매력을 제일로 꼽고 있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솔직하고 회화적인 맛 또한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화 가운데에서도 책거리 그림은 유교적 토대 위에 자연과 인간과 그 환경이 조화를 이룬 삶의 공간의 소유주를 표현하고, 인간의 삶을 예술의 중심에 놓은 근대지향성이 엿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책거리 그림 중에서도 '쌍폭 책거리' 그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림에 대한 색깔, 사물들의 배치, 사물의 위치, 서로간의 상관관계, 사물의 방향, 다소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쌍폭 책거리'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공간감과 현대의 공간 배치구조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다소점, 원근의 무시, 역원근법, 평행투시법 등의 표현방법은 평면의 그림에 입체감을 표현하고, 배치되어있는 사물들에 생동감을 더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쌍폭 책거리' 그림의 구도배치가 현대적인 구도배치에 모티브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Abstract)

When it comes to the paintings in Joseon Dynasty, landscape and a genre paintings were popular but it was Minhwa that people of every class loved. Minhwa contained not only true meaning of a picture, but also it was simple and straightforwardly depicted. Among them, paintings in books belonging to the Joseon Dynasty (hereinafter called Checkgeori paintings) describe a small universe in which people live harmoniously in nature on the basis of a Confucian society. In addition, it shows modern philosophy in paintings and makes a feature of human life.

In this paper, 'Ssangpok Checkgeori' in Checkgeori paintings illustr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ings such as color, arrangement, place and direction. They have outstanding features such as the direction of things in composition, multiple vanishing points, a folding screen constituent and movement of viewpoints. Therefore, we come to know the painting method of 'Ssangpok Checkgeori' can be applied to modern paintings.

### (Keyword)

viewpoints, spatial arrangement, Minhwa, VMD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책거리 그림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책과 함께 하는 삶의 공간을 표현한 병풍그림이다. 선비방의 서재에 있음직한 물건들과 일상용품들을 모아 한 화면에 재구성한 그림을 일컫는다. 이 그림은 크게 민화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당대 지배층인 사대부의 생활공간은 물론이러니와 경제적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유교적 범주에서 소외된, 상민이나 부민층의 과시용이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sup>1)</sup>

일찍이 회화에서는 여러 시대를 통하여 미술가들이 캔버스나 패널의 평면 위에 어떻게 삼차원적인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해 왔다. 15세기 이후 화가들은 앞에 있는 것일수록 크게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것일수록 작게 그리는 원근화법을 사용하여 왔는데 19세기에 프랑스 화가 세잔느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는 자연풍경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집이나 나무, 산들을 기하학적 형태와 일치시켰으나 반드시 한 시점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누구의 눈도 한곳에 정지시켜 놓지 않음으로써 일상적인 시야처럼 사실과 같이 보이도록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형태들을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구도 속에 안배했다. 관찰자의 눈은 형태들을 분리하여 식별하지만 전체적인 풍경은 마음속에서 함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사물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회화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통적인 원근화법을 버리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회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는데 그림을 구성할 때 고정된 시점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점을 움직여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인 변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책거리 그림은 서양의 원근법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서양의 원근법은 나로부터 시작한 자아중심의 시각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계와 자아를 대립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의 조화 속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자연 친화 사상인 일원론적 세계관의 사상을 근본으로 여기고 있다. 일원론적 세계관은 책거리 그림의 다시점에 의해 그 추구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다.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림의 일부분이 되어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유와 자연과 하나 되어 모든 사물과 공유하고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명도에서 순수한 우리 미술의 장르로 발전시킨 책거리 그림은 사람이 보는 그림이 아니라 그림 속의 사물이 인간을 바라보는, 서양의 도화 방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조선인의 독창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은 관념적인 예술품으로서 감상용의 가치를 넘어 병풍으로 만들어 실생활에 활용하는 근대화의 정신이 담겨있다. 이렇게 시대정신과 함께 조선인의 미의식이 담겨져 있는 책거리 그림 중 본 연구에서는 '쌍폭 책거리' 그림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

다. 먼저 책거리 그림의 개념과 책거리 그림에 나타난 공간 구성의 특징인 다시점, 동시성·정면성, 역원근법, 원근법의 무시, 반복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공간분석에 있어 사물의 배치방법과 위치, 사물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후 한국적인 배치방법을 현대적인 공간 배치 구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많은 작가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잠언을 확산시키며 한국적인 이미지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상디자인을 할 때 한복의 선과 색을 적용해 디자인을 한다거나, 건축에 있어서도 전통건축을 재해석해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상품이나 사물을 공간에 연출하고 배치하는 방법은 서구에서 유입된 배치방법과 구성법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상품연출 방법과 구성법을 찾고자 그 모티브를 우리 민화의 '쌍폭책거리' 그림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향은 한국적인 상품연출의 공간구성과 배치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근거로 우리 민화 중에서 현대적인 공간구성의 모티브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쌍폭책거리 그림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첫째, 쌍폭책거리의 공간구성의 특성 둘째, 사물들의 배치구도 셋째, 사물들의 시점 넷째, 사물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전개한다. 분석 후 현재 상품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상품 광고사진속에 나타나는 상품과 사물들의 배치방법과 구성법들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분석의 방법의 초점으로는 첫째, 동시성·정면성 둘째, 다시점 셋째, 반복구성 넷째, 사물배치 방법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전개한다.

우리의 정신이 잘 담겨져 있는 민화의 그림을 선정하여 현대적인 상품연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새로운 시각으로 옛 그림을 보고 공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쌍폭 책거리' 그림의 분석을 통해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공간배치가 어떻게 현대적인 상품연출의 배치방법과 공간구성의 모티브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2. 책거리 그림의 개념과 공간구성의 특성

### 2-1. 책거리 그림의 정의

책거리 그림은 학문을 숭상했던 우리 겨레의 생각이 낡은 독특한 민화이다.<sup>2)</sup> 이우환은 문방으로 독립시켜 놓고 있으며, 야나기 무네요시는 정물화로 분류시켰다. 이러한 분류 중에서 야나기 무네요시의 개념을 근거로 정리해보면 책거리 그림은 책더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장식물을 꽃꽂이 식으로 꾸민 일종의 정물화로, 학문을 숭상했던 생각이 낡은 독특한 양식의 그림이다. 책거리 그림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의 영향이 짙은 기명절지도에서 출발하였다. 민화의 변

1) 조자경, '책거리그림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P.5

2) 임두빈, 한국의 민화IV, 서문당, P.25

화 현상이 두드러졌던 영조(1725~1776)이후에 널리 그려지고 쓰여 지다가 19세기 초에 전형적인 꽃꽂이 형식의 책거리 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책거리 그림은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유교정신과도 잘 맞아 실내의 장식병풍으로까지 제작도에 활용된 생활도인 것이다. 이런 책거리 병풍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평등하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자연친화사상, 아주 작은 사물이라도 존중하는 만물숭배사상도 나타나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sup> 책거리는 순 우리말로 '거리'한 복수(複數)를 나타내는 우리말 접미어로 이 그림에 책과 관계없는 갖가지 일상용품들이 어울려 기묘한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즉 그 뜻하는 바가 책 및 그 주변의 물건이라는 것이며, 책을 쌓아 올린다거나 열어 놓고 그 주변에는 문방사우(文房四友) 외에 책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용품, 즉 술병과 술잔, 주전자, 찻잔, 바둑판, 담뱃대, 부채, 시계, 등잔, 촛대, 꽃병, 대접, 단지, 약그릇, 향아리, 괴석, 분재, 화분, 활, 화살통, 지팡이, 안경, 거문고, 가야금, 단소, 대금 등은 물론이고 여자의 치마, 꽃신, 족두리나 식물, 동물, 꽃, 과일, 물고기 등도 조화롭게 배치하여 사랑방에서 사용되거나 사랑방을 꾸미는 용도를 지니는 것들이었을 것이다.<sup>4)</sup> 책거리 그림에 표현된 많은 책들은 선비들이 가장 이상으로 여겼던 학식을 쌓고자 했던 마음과 책을 많이 읽었다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산수화, 화조화와는 달리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사물을 표현하고 있고 역원근법으로 그려졌다. 다소점 방식의 시점을 취하였고 잣대를 사용한 것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책거리 그림은 서재 또는 어린이 방에 장식되었으며, 사람은 그 그림(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책상과 마주하게끔 되어 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장식화인 셈인데, 동양의 도교적 소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책거리 그림은 넓게 보아 민화에 포함시키지만 다른 민화와는 달리 서민층의 생활에서보다는 양반들의 소유물로서의 기능이 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책거리 그림 병풍은 양반들의 서재를 장식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한편 상업의 발달과 경제력의 성장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를 획득한 신흥 상인과 부민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위해 서재를 꾸미던 장식용으로 이용되었으리라 본다.

## 2-2. 책거리 그림의 공간구성의 특성

### 1) 동시성·정면성

정면성의 표현이란 그리기 쉽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부분만을 골라 그리는 방법으로 원시 미술이나 아동의 회화표현에 자주 나타나는 방법이다.<sup>5)</sup>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실생활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와는 아주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그림이 봉사해야 했던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함이었다.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미술가의 과업이었다. 그

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유연한 각도에서 보이는 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그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도록 보장해 주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기억을 더듬어 그렸다. 사실 그들의 방법은 화가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의 방법과 비슷했다. 아동화에서 그려진 그릇류를 보면 윗 주둥이 부분을 동그랗게, 몸체는 직선으로 측면을 그린다. 이와 유사한 표현 방법이 민화에도 등장하는데 책거리 그림의 경우 반원으로 표시하여 나타내고, 또 거기에 그릇의 굽도 그려놓는다. 이러한 동시성·정면성의 특성을 지닌 모양은 책거리 그림 등의 과일 그릇과 찻잔에서 종종 나타난다.<sup>6)</sup>

### 2) 다시점

회화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며 창조되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화법이 구사되었는데, 특히 다시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시점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구 문화권의 회화는 르네상스 이래 일시점 원리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동양화에서는 시점이 이리저리 이동해 나아가는 다시점의 시(時)형식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는 두 문화권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동양은 불교사상과 노장사상 및 유교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신비적 직관에 의거한 통괄적이고 종합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서양은 객관주의의 대립적이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면이 강하다. 그로 인해서 동양은 자아의 개별적, 주관성보다 세계와 하나 되는 합일성을 중요시 여기고, 현상과 실체의 일원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양은 세계와 자아를 대립관계로 보고 자아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화법의 규범처럼 되어있던 일시점의 원리를 거부하고 원근법도 파기해 버리면서 다시점의 새로운 화법을 창안한 큐비즘도 서양인들이 지녀왔던 자아중심의 세계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큐비즘 회화의 논리적 분석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데카르트적 자아의 사물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평면적 형상들로 해체시키며 그러한 다수의 시점에 의해 분해된 형상들을 한 화면에 동시 다발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런 큐비즘 회화에는 자아의 대상에 대한 논리적 분석적 이해 태도가 깔려 있음을 본다. 여기에서는 자아와 세계와의 주체와 객체와의 대립적 상호관계가 상존해 있는 것이다.<sup>7)</sup> 책거리 그림을 살펴보면 전후, 좌우, 상하, 고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시점이나 작법을 무시하고 그렸다. 다시 말해 시점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전개하고 있다. 어느 한가지의 시점이 아닌 여러 시점이 뒤섞여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물체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전면을 동시에 배치해 놓은 것이 그것이다. 책거리 그림은 넓게 보면 정통회화에서 볼 수 있는 다시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통회화 보다도 더욱 자유분방한 다시점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서양의 풍경화를 눈여겨보면 설령 화

3) 김영재, 민화와 우리신화, 조선민화박물관 출판부, 2004, P.167

4)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5) David A Lauer,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89, p.85

6) E.M.Gombrich, 서양미술사, 예경, p.34-35

7) 임두빈, 한국민화의 미학적 고찰, 미술세계, 1989, 54호 정리

쪽에 인물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화면의 밖에 반드시 한 사람의 관찰자가 있어서 이젤 앞에 못박힌 듯이 서서 주위 풍경을 측량하듯이 바라보는 차갑고 단조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옛 산수화에서는 어디까지나 산수자체가 주인공이다. 사람은 주인공인 산을 소중하게 한가운데 모셔두고서 치켜다보고, 내려다보고, 비껴보고, 휘둘러봄으로써 산수의 다양한 실제 모습에 근접하려 한다. 산수화의 목적이 자연의 형상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라는 기운까지 담아내는 것이다.

### 3) 원근법의 무시

책거리 그림은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데 원근과 크기를 무시하였다. 따라서 대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공간과의 상대적인 비례를 따지지 않았으며 원근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가의 주제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중요한 것은 크게, 그렇지 않은 것은 작게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시각적으로 더 가까워 크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관심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크게 묘사한 것이다. 책거리 그림을 포함한 민화의 사물크기, 비례는 단지 자연에 있어서의 사물들의 외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상에 점유하는 그 사람들의 중요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시각적 위치가 아니라 개인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역원근법

민화의 주종을 이루는 역원근법은 책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의 소실점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시방식이다. 원근법이란 원래 자아중심의 시각에 의해 세계를 합리적·논리적으로 그려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을 전제하는 자아중심적 세계관에 기인한다. 그러나 민화를 낳은 세계관은 '나'와 '자연'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바라보는 대등한 생명가치로 여겼다. 동양의 생명관이나 자연관을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시(視)방식에서도 역원근법이 나타났다. 역원근법에서는 소실점의 방향이 감상자 쪽으로 접근하므로 긴장된 박진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과 자연물 사이 대등한 관계에서 친화력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역원근법은 입체파화가들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는데 시각이 지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초현실적 체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화의 다시점이 큐비즘에서 말하는 해부와 구성원리에 의해 다시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개별성의 존중으로 '상대성의 원리'를 통해 독특한 회화양식을 만들어내는 한국적인 사상구조에서 기인된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공간의 상하원근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간을 분할하여 인간의 연속성과 표현의 동시성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sup>8)</sup>

### 5) 평행투시법

민화뿐만 아니라 동양화에 그려진 네모의 입체적 건물이나 기물 등은 거의 원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행투시법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도학의 도법(圖法)에서 나온 과학

적인 표현 방법인데, 도학은 그림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 정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9)</sup> 책거리 그림이나 동양화에 나오는 건물, 가구류, 책 등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등축도법에 의해 그려진 그림들이다. 민화의 책거리 그림에서 보이는 쌓은 책뭉치의 길이가 한결같이 나란하고 다른 한쪽은 경사를 이루게 그린 것이나 '궁궐도'에 보이는 나무들이 점점이 있는 긴 회랑과 담장이 그려진 것 등이다.<sup>10)</sup> 아마도 이런 평행투시법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 많은 건 그리기 쉬운 묘사방법이며 작가가 항상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 6) 반복

반복의 의미는 같거나 유사한 형태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두 가지 현상이 거듭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반복성은 주술적인 면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성취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모든 주술적 행위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반복성은 주술적 면과 더불어 리듬감을 불러일으킨다.

### 3. '쌍폭 책거리' 그림의 공간배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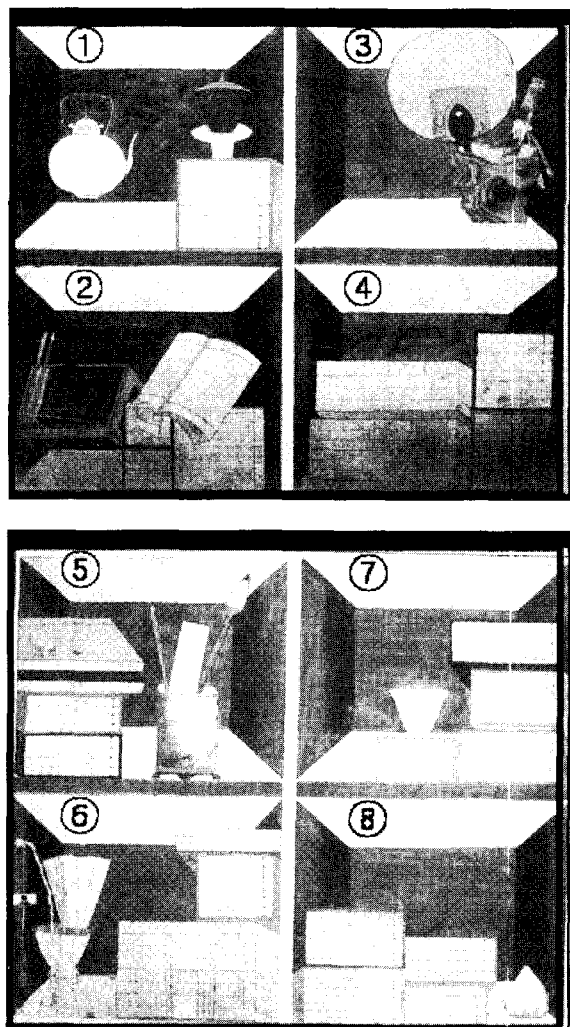


그림 1. 쌍폭 책거리 그림

8) 회화의 방법과 기원, 기문당, 1980, p.242

9) 김영학, 민화, 대원사, 1993, p.96

‘쌍쪽 책거리’ 그림은 한쪽이 42×45cm로 두쪽짜리 병풍이다. 시대적으로 18, 19세기로 추정되며 작가는 미상이다. 이 그림은 주로 학식을 쌓고자 했던 마음으로 서재나 아이들의 방에 주로 장식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그림에 표현된 대상들이 갖고 있는 다소점인데 각각의 대상들이 서로 다른 시점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대상 또한 각 면들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시성·정면성으로 사물이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며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민화 중에서도 책거리 그림은 그 독특한 조형성으로 인해서 매우 가치있게 여겨지고 있다.

### 3-1. 사물들의 배치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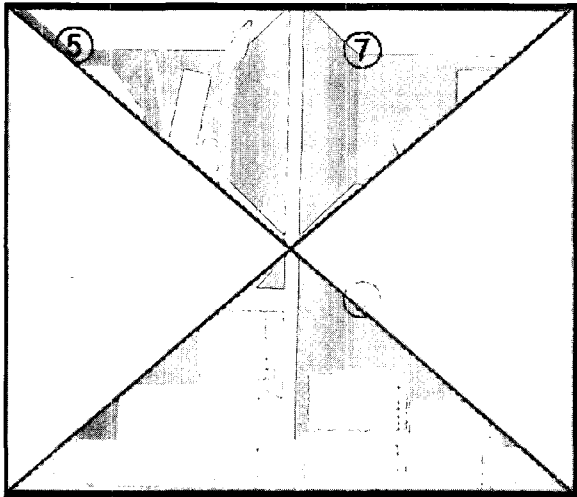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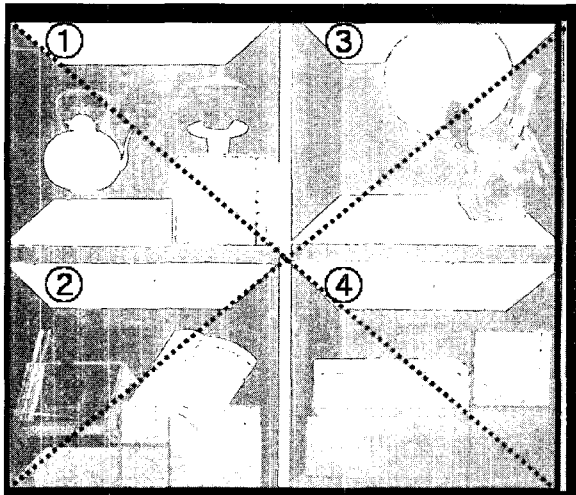


그림 2. 사물들의 배치구도

이 그림에서 배경과 사물들의 관계는 작게는 1칸, 크게는 전체 그림에서의 위치에서 알 수 있다. 우선 각각의 한 칸에서 보면 사물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되게 배치시켜 여백을 두고 있다. 아래와 위의 관계를 볼 때는 각각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 반대편에서 여백을 많이 두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화면을 채우고 있는 형상을 보면 책이라는 공통의 소재에 다른 다양한 집기들을 골고루 배치

10) 앞의 책, p.97

해 직선과 사선, 원 등을 써서 단조로움을 배제하고 있다. 아래와 위를 하나의 쌍으로 보고 그림을 4개로 분절을 했을 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상을 떨어뜨렸다, 붙였다 하는 것이다. ①②는 두 가지의 대상을 분리해 화면에 배치하고 있고, ③④는 두 가지의 대상을 분리해 화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⑤⑥은 비슷한 대상을 방향만 바꾸어 놓고 떨어지게 배치하고 있고, ⑦⑧ 역시 비슷한 형상을 방향을 반대로 배치해 놓고 간격을 두어 떨어뜨려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비슷한 형상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될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배제하고 리듬감과 조화로움을 준다.

### 3-2. 사물들의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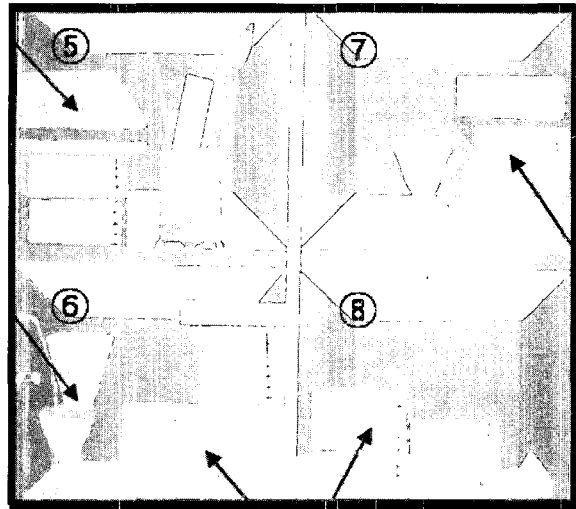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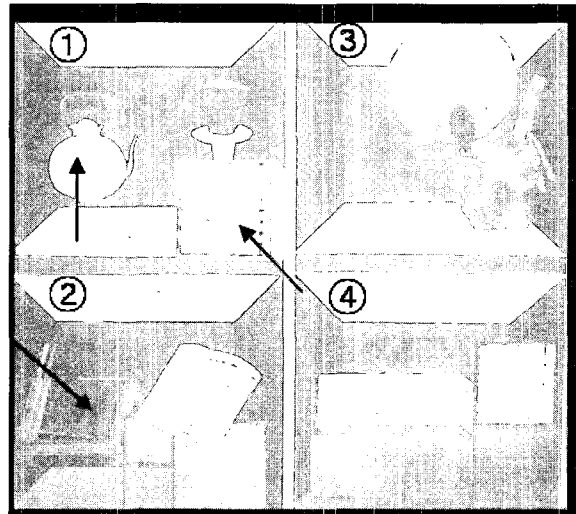


그림 3. 사물들의 시점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사물들의 보이지 않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면을 다시점을 통하여 보여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물들이 바다에 안정되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보인 다던지 기울어져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①의 책의 시점은 오른쪽 아래에서 위쪽, 찻잔은 위에서

아래로, 주전자는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② 비루는 왼쪽 상단에서 아래로, 하단부에 쌓인 책은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림⑤에서는 책은 왼쪽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점을 가지고 있고, 필통은 정면으로 그림⑥에서 책은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고 부채와 붓이 담겨 있는 필통은 윗 주둥이 부분을 보여주고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바라보는 시점을 가지고 있다. 일시점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면을 보여주고자 시도된 다시점의 시선은 평면의 그림에 입체감을 표현하고, 배치되어있는 사물들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 3-3. 사물들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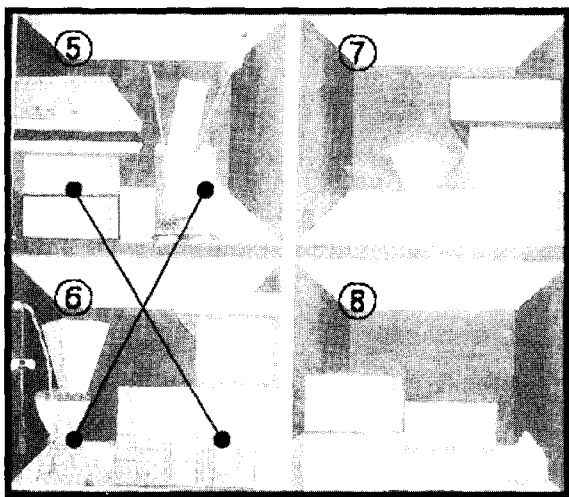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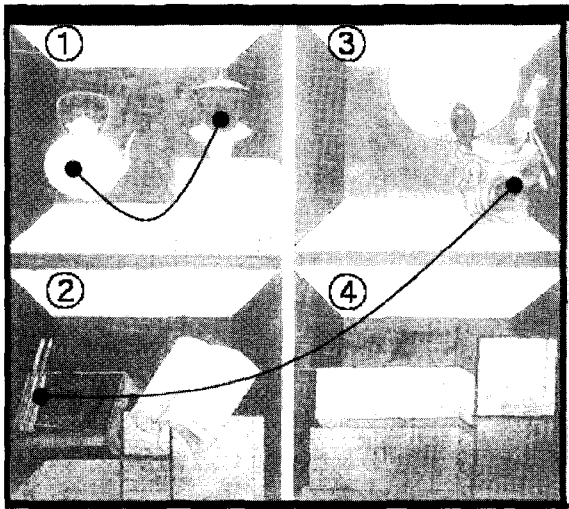


그림 4. 사물들 간의 상관관계

그림의 중심을 축으로 2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그림은 한 칸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분리된 각 쪽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그림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의 주전자는 그 안에서 찾잔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을 접었을 때 만나는 ⑦에서 찾잔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림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에서 부채와 칼을 담고 있는 통은 ⑤에 있는 붓과 종이를 담고 있는 필통과 비슷한 형상의 공통점

을 가지며 만나고 있다. ②에 있는 비루는 옆의 책들과 연관성을 잘 맺고 있지만 ⑧에 있는 필통과 비슷한 형상의 공통점을 가지며 만나고 있다. 2쪽으로 구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안에 놓여진 사물들이 연관성을 갖고 만나게끔 해서 암시적으로 사물들 다른 공간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서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들 간의 이동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 4. 현대작품과 비교분석

‘쌍폭 책거리’ 8폭 그림 중 현대적 배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배치구도를 가진 5개의 그림을 선정하여 현대적인 공간구성의 확보와 비교, 분석 해보았다.

### 4-1. 동시성 · 정면성 초점에서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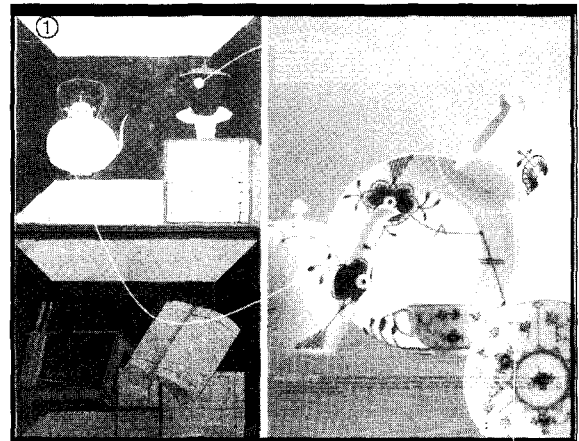


그림 6. ①번 그림과의 비교

정면성의 표현이란 그리기 쉽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부분만을 골라 그리는 방법으로 원시 미술이나 아동의 회화표현에 자주 나타나는 방법이다. 아동화에서 그려진 그릇류를 보면 윗 주둥이 부분을 동그랗게, 몸체는 직선으로 측면을 그린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나타난 그림①에서는 찾잔의 전체모습과 찾잔 받침대의 전체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화면에 두 물체가 동시에 정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사물들의 보이지 않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①번 그림과 비교해 본 우측의 사진은 그릇화보를 위해 VMD<sup>11)</sup> 연출을 한 이미지사진이다. 화보를 촬영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도를 잡은 뒤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후 다시 포토샵으로 편집과정을 거친 후 나온 사진이다. 이 사진이미지에서는 위쪽에 있는 접시의 정면과 찾잔의 측면 모두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하여 물체를 비스듬히 배치하여 현실적인 시점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사물의 시점을 보여주 고자 하였다. 현대는 여러 가지의 촬영기법과 포토샵이라는

11) 심낙훈, 비주얼머천다이징&디스플레이, 영풍, p.20. VMD는 머천다이징을 성공하기 위해 상품 프리젠테이션을 훌륭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매입부서와 협력하여 매입상품을 제공, 전시, 판매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통하여 이러한 사진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18세기에 현대적 조형의 특성과 사물의 바라보는 구도를 생활속에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 4-2. 다시점 초점에서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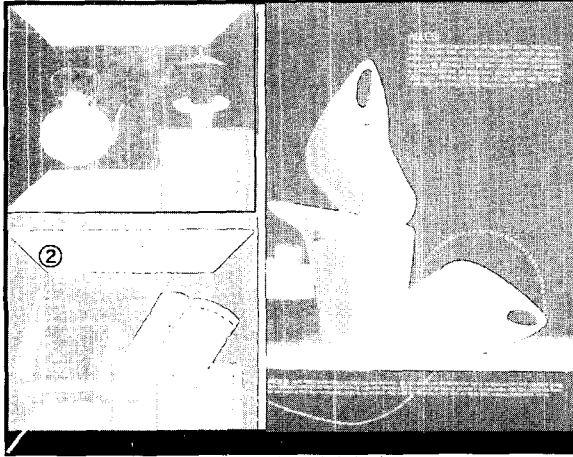


그림 7. ②번 그림과의 비교

그림②에서는 전후, 좌우, 상하, 고저에 대한 일관된 시점이나 작법을 무시하고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한가지의 시점이 아닌 여러 시점이 뒤섞여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물체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시점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전개하고 있지만 주체의 움직임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 베틀은 공중에서 기울어져 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체가 항상 베틀을 바라볼 때 보이는 시점이며, 펼쳐진 책은 주체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는 한 사람의 관찰자가 이젤 앞에서 못 박힌 듯이 서서 주위 사물을 측량하듯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치켜다보고, 내려다보고, 비껴보고, 휘둘러봄으로써 사물의 다양한 실제 모습에 근접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②와 비교해 본 오른쪽 이미지 사진 또한 사물의 행위에 대한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의 시점으로 보기 힘든 아랫부분이나 주둥이의 모양을 보여 주고 다양한 시점에서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적인 조형적 구성과 배치법의 다양성이 이미 쌍폭 책거리 민화의 다소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민화의 조형적 구도가 현대의 공간 배치구도에 모티브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3. 역원근법 초점에서의 분석

역원근법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이게 하거나 가까운 것을 먼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화면의 뒤쪽에 가상적인 시점을 설정하여 화면 안에서 밖을 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소실점의 방향이 감상자쪽으로 접근하므로 긴장된 박진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과 대상물 사이에 친화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림⑥에서는 필통과 하단에 있는 책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2단, 3단에 있는 책들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역원근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을 알 수



그림 8. ⑥번 그림과의 비교

있다. 그림⑥과 비교해놓은 현대적인 사진화보에서도 앞쪽에 있는 사물이 더 크게 보이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뒤쪽에 있는 접시와 찻잔을 강조하기위해 더 크게 배치 한 것을 볼 수 있다. 책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의 소실점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시방식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물과 사람사이의 친화력을 높여 현대적인 VMD 화보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4. 반복구성 초점에서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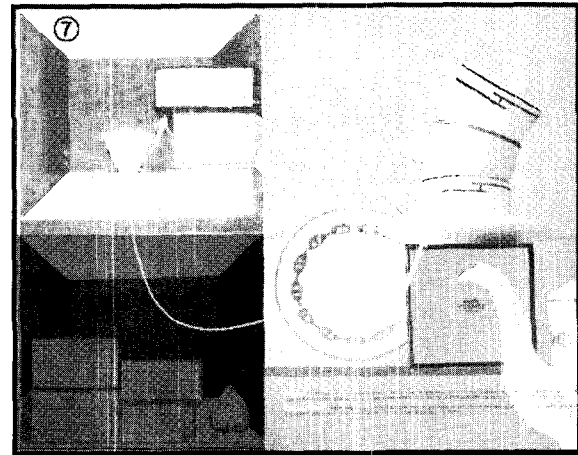


그림9. ⑦번 그림과의 비교

반복성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성취의 의지를 나타내며, 반복되는 사물이나 대상에 리듬감을 불러일으켜 보는 이의 기억속에 오랫동안 인지되어 강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⑦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책들이 겹겹이 3단으로 쌓여져 있고 바닥에서 한권이 더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책들을 한 화면에 4권이나 배치한 것은 책거리 그림의 주체인 책을 강조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크기이지만 제일 아랫단보다 2단은 조금 더 들어가고, 3단은 1단보다 조금 더 밖으로 배치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이는 반복구성이 줄 수 있는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⑦과 비교해놓은 현대적인 사진화보에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잔을 반복적으로 쌓아서 구성하고 있다. 이때 똑 같은 크기의 잔들에 기울기를



주어 쌓음으로 단조로움을 없애고 리듬감과 조화로우움을 주고 있다.

#### 4-5. 사물배치 초점에서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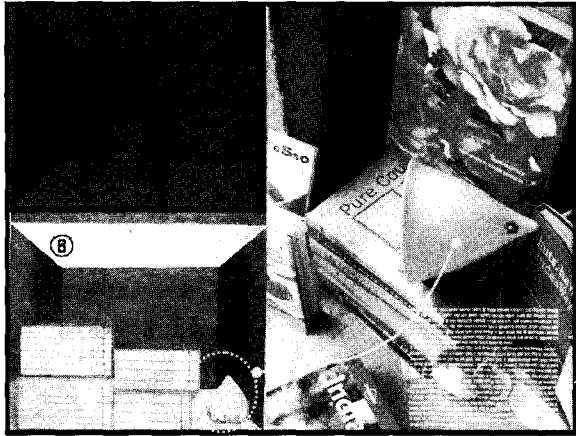


그림10. ㉑번 그림과의 비교

쌍폭 책거리 그림의 전체 8폭의 그림에서 보면 책의 중량감과 무게감, 직사각형이 주는 딱딱함과 단조로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7폭의 그림에 모두 곡선의 물체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㉑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가득 쌓인 책의 중량감과 딱딱함을 융화시켜 주기 위해서 곡선의 찻잔을 배치해 놓은 듯 보인다. 그림㉑과 비교해놓은 현대적인 사진화보에서도 화면가득 채워진 책의 무게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곡선의 스탠드를 배치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사각형의 스탠드를 배치했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직선이 주는 딱딱함과 긴장감을 받게 될 것이다. 쌍폭 책거리 그림은 책이 주는 무게감과 딱딱함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백과 곡선의 배치로 조형성이 뛰어난 구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폭로 구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 안에 놓여진 사물들이 연관성을 갖고 만나게끔 해서 암시적으로 사물들간의 다른 공간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서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들 간의 이동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 5. 결론

이 연구는 민화 중에서 '쌍폭 책거리' 그림을 연구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VMD 공간 연출에 한국적인 구성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책거리 그림을 통해 볼 때 민화가 모든 사람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민화를 제작한 장인들의 인간성, 곧 작품 속에 살아있는 정신과 그것을 감싼 양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술적 욕심 없이 소박한 생활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인간, 자연 그리고 초자연에 대한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를 솔직하면서도 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거리 그림은 같은 주제는 있으나 똑같은 그림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소재를 그리더라도 색채나 모

양에 변화를 주어 독창성을 잃지 않으려는 조선인들의 미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 남을 모방하거나 전통에 얽매임 없이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예술과 생활과 분리시키지 않고 민중들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던 모습이 실용화로, 학문을 숭상하는 높은 이상의 세계로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책거리 그림은 그 구성적인 측면에서 기하학적 추상당의 요소를 듬뿍 지니고 있다. 특히 수많은 책들만으로 이루어진 책거리 그림은 그것 자체가 현대회화로 평가되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현대적 표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책거리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수직과 수평선의 다양한 짜임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틀은 그 틀을 메우고 있는 색채와 어울려 마치 신조형주의 회화에서와 같은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책거리 그림은 사물들 하나하나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질서를 부여받고 그려짐으로써 독특한 조형성과 장소성을 지니게 된다. 난데없이 책이나 안경 악기 등이 공중에 떠 있다든가, 하나의 꽃병이나 사물들이 어떤 부분은 입체인데 다른 부분은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 등, 현실적인 형태성을 왜곡 변형함으로써 타성적인 시각의 관습에 충격과 자극을 주어 신선한 시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형이상학과 회화에서의 불가사의한 정조와 입체와 회화에서의 구성의 신선함이 결합된 듯한 새로운 회화 표현상의 감흥을 느끼게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한국인 고유의 정서가 담겨있어, 책거리 그림에서 전통과 현대의 깊은 결합상과 전통의 현대적 표현에 대한 창조적 발상의 한 부분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서구의 많은 회화적인 공간 배치 방법들에 비해 VMD 공간 연출시에 한국적인 구성 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책거리 그림 중 '쌍폭 책거리' 그림은 그 자체가 현대적인 공간배치에 적용 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소점에 의해 수많은 공간을 함축하고 있고, 시간의 흐름과 공간상에서 시선의 이동을 보여주며 배치되어 있는 사물에 생동감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유추해보고 분석을 통해 나온 정보에서 현대적인 VMD 배치구도와와의 비교 분석 후 차후에 한국적인 공간 배치구도 연출에 지속적으로 적용 시키고자 한다. 이 그림은 현대적인 조형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서적 뿌리는 매우 한국적이다. 본 연구자는 우리 고유의 민화가 지닌 정신적, 양식적 정체성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현대의 디자인영역에 반영함으로써 주체적인 새로운 VMD 공간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연속적인 연구를 계획한다.

## 참고문헌

- 김호연, 한국의 민화, 열화당, 1978
-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 윤용이, 이태호, 유홍준,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표를 찾아서, 학교재, 1997
- 원동석, 한국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4
- 원동석, 한국 현대 미술속의 민화, 월간미술, 1989, 8월호
- 임두빈, 한국민화의 미학적 고찰, 월간미술세계, 1989
- 임두빈, 한국의 민화, 서문당, 1993
- 김영재, 민화와 우리신화, 조선민화박물관, 2004
- 양해동, 조선조 민화의 상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 오주석, 옛그림 읽기의 즐거움, 솔
-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1
- 김진송, 책거리로 본 민화의 정신세계, 미술세계, 1998, 7월호
- 스키하라 마사히로, VMD, 포텍스, 1996
- 심낙훈, 디스플레이 용어사전, 국제출판사, 2002
- 심낙훈, 비주얼머천다이징&디스플레이, 영풍문고, 1996
- 박은주편저,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1989
- 이영주, VMD에따른 패션디스플레이, 미진사, 1993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 유영배, 유통환경 디스플레이, 디자인하우스, 1996
- 김은희, '쌍폭책거리' 민화 분석을 통한 전망대 설계 계획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조자경, 책거리그림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고애량,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비주얼머천다이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1984
- 김민성, 디스플레이 조명연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1988
- 이서희, 백화점 쇼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관한 실태조사, 복식문화연구 제10권, 2002
- 한송희,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의한 백화점 환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1988
- 박영순, 백화점 쇼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1987